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와 젠더 특성에 관한 종단 연구*

이정화**

초 록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와 성과를 젠더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노동을 매개로 작동하는 산재보험제도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젠더 관계의 교차점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관점의 연구가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본고는 직업복귀 성과를 직업복귀 이행, 임금소득, 직무 만족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산재보험패널조사의 1~5차년도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업복귀의 과정 속에 가려진 젠더의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요양 종결 후 5년간 직업복귀 이행(①)에 있어서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던 당시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재해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 산재근로자 내에서 격차와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임금소득의 변화(②)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개인·가구 및 일자리 특성의 요인들이 유의하였다. 한편 직업복귀의 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직무 만족도(③)'에서는 여성과 남성 산재근로자에서 공통적으로 재해를 통하여 포착되는 특성이 여전히 산재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제약하거나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종단적인 직업복귀 성과에는 젠더 특성이 존재함을 실증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성별 간 차이를 고려한 젠더 인지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주제어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젠더, 노동시장 복귀, 직업복귀, 직무 만족도

*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jeong0112@kcomwel.or.kr)

I. 서론

흥미롭게도 산재보험제도권에서 성(gender)은 학술연구와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영역들과 달리 산재보험 분야는 젠더 연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전된 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특성을 축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한 논의들을 고려할 때에도, 노동시장 참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산업재해와 노동시장 복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단계이다.

사회의 구조이자 관계로서의 젠더는 노동시장, 그리고 맞물린 복지국가 체계에서 핵심적인 축으로 기능한다(안숙영, 2012; Orloff, 2009; Rein, 1985; Sainsbury, 1996; Pascall & Lewis, 2004). 노동을 매개로 작동하는 산재보험제도는 복지국가 및 사회권과 젠더(Orloff, 1993; Sainsbury, 1996), 사회보험과 젠더(석재은, 2012; 홍승아·마경희·최인희, 2013), 노동시장과 경제체제의 변화와 젠더(신경아, 2014; Ferguson, 2013), 나아가 유급노동 및 돌봄노동과 가족(안숙영, 2012), 계급과 젠더의 관계(김영미, 2010; 배은경, 2009; O'Connor, 1993)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나는 젠더 관계들이 축적되는 공간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산재근로자의 젠더 특성은 개별 노동자로서의 특성과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유하는 특질의 혼합체이자, 개인의 유급노동 및 직업생활과 그에 연관된 거시적인 환경을 엮어내는 결과물이다.

노동시장의 젠더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의 양상, 임금, 고용조건, 직종 등 여러 영역에서 확인된다(신경아, 2016; 허은, 2013). 시간제 고용, 성별직업분리,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 신경아(2016)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이 여전히 성별 분절과 중첩되어 여성의 저위성을 지속시키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성별 분리구조와 격차는 노동시장과 연동하는 복지제도의 젠더 특성을 만들어낸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남성이 개별연금 수급자, 여성은 파생연금 수급자로 배분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산재보험제도는 수급권 형성의 과정, 현금 급여와 현물급여가 혼합되는 방식 등으로 인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각각의 체계를 가지고 작동하는 경로에서 노동시장과 젠더가 큰 갈래를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논증과 현황들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에도 젠더라는 분석의 틀을 사

용해서 가려낼 수 있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1·2차 산업에서 주로 발견되는 육체적 재해에 무게를 두어 왔으므로, 그동안 여성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산업 분야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체 재해자 중 남성이 80% 가량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는 일반적인 재해자의 특성이라기보다 남성 재해자의 특성이라는 설명을 덧붙여도 과도한 해석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일터에서의 사고·질환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간단치 않은 관계,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 등도 산재보험의 젠더 연구가 미진한 현실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보험제도에 내재된 젠더 특성에 관한 인지와 논의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며, 산재근로자를 통해서 개인·노동시장·산재보험제도 간의 관계를 젠더의 시각으로 읽어보았다. 산재근로자의 다양한 행태 중에서도 직업복귀(Return-to-Work)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남성의 산재근로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산재근로자 집단에서 종단적으로 형성되는 젠더 특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성별로 분리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모습에는 개인 차원의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 산재보험제도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젠더를 관통시켜 심도 있고 차별화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II.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보험의 젠더 특성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현황분석」(2015~2017년) 자료에 의하면, 매년 9만 명 내외의 재해자(업무상 사고·질병·사망)가 발생하는 추세이다(‘15년 9만 129명, ’16년 9만 656명, ’17년 8만 9,848명; 각 연도별). 성별로는 남성 산재근로자가 80% 가량, 여성 산재근로자는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15년 20.0%, ’16년 20.0%, ’17년 21.1%, 여성의 비율). 연령대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및 60대의 비율이 높고, 전체 및 남성 산재근로자에서는 비교적 고루 분포한다. 요양기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해당자가 45%를 상회하는 추세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업종별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기타의사업’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

은 반면, 남성 산재근로자의 ‘기타의사업’ 비율은 20%대에 머무르며 ‘제조업’·‘건설업’은 각기 30%를 넘어선다. 이와 같은 산재근로자의 개괄적인 현황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성별을 분리하였을 때 드러나는 격차와 함께, 여성보다 남성 산재근로자의 여러 경향들이 전체 산재근로자의 분포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젠더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남성의 특성이 주를 이루는 젠더 편향된 연구로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며, 젠더 관점의 필요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

한편 상기의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는 연결고리에도 젠더 간의 격차가 녹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범위가 엄격하므로 재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김상호 외, 2014:83-118). 또한 김경하(2012), 박은주(2012), 이경희(2010), 정진주·김형렬·임준(2011) 등에서 지적하듯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육체노동자 중심의 업무상 재해에 주목하여 직업성 질환, 정신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을 받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둘째, 대기업 종사자나 상용직 종사자와 같이 노조의 조직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접하는 노동자일수록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자로 승인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본다(강동욱, 2017; 권순식, 2016). 노조의 조직력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노동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재해 발생 시의 신고를 돕고 노동자로 하여금 관련된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우영·권현지(2016)는 이 같은 노조의 재해율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사업장의 위험도나 육체적 노동의 집중도 등 사업장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노조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의 역할이나 노조가 기능하는 사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노조의 성차는 산재보험제도권의 젠더 격차에 일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의하여 제도권으로부터 제외되는 노동자 범위가 넓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2018년 상시근로자 1인 미만 등 여러 개정들을 통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이 같은 한계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그간 적용·징수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모호하고, 일부 업종에 국한되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남아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박은정, 2015; 오중은, 2014). 넷째, 적용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 신청에 대한 조직문화, 업무관련성 입증을 비롯한 절차상의 어려움, 산재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은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다(박은주, 2012; 정진주·김형렬·임준, 2011; 홍승아·마경희·최인희, 2013).

이와 같은 쟁점들은 산재보험제도의 젠더 특성을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여성은 육체노동보다는 감정노동 등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고, 육체노동을 수행하더라도 떨어짐·끼임 등 증상의 사고보다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반복적인 활동과 점진적으로 질환이 축적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 일자리나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일자리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은 등, 산재보험제도권에서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안전망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이로 인한 실효성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 전반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남성 노동자 중심의 체계(홍승아·마경희·최인희, 2013)는, 보상·요양·재활로 시행되는 정책 과정과 정책대상자 집단의 젠더 격차로 이어진다.

2.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젠더 특성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직장복귀)는 산재근로자 개인과 제도·사회환경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다(이정화, 2017: 391-392 참조).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산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인 특성, 장애등급 등 재해와 관련한 특성, 공공서비스 등을 주된 영향 요인으로 꼽는다.

직업복귀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들로는 직업복귀의 성취(이운진·이다미, 2015), 원직장으로의 복귀(양재성·오순복·임성수, 2012; 이승렬·이승욱, 2016), 임금(박수경, 2012), 안정적인 근로조건과 고용유지(최근호·서용무·유동희, 2015; 한기명·이민아, 2017; Wasiak, 2007; Young, 2010) 등이 있다. 한편 산재근로자가 본인의 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그간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다. 이웅·엄명용(2016), 이은혜·이현실·양지안(2017) 등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일을 둘러싼 환경과 직업에의 적응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력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자질이나 적성을 충족하는 일자리의 적합성(job suitability)도 함께 고려해야 더욱 발전된 직업복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Young, et. al., 200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젠더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며(곽현주·최은영, 2018), 여성의 유급노동은 무급노동과의 관계에 의해

서 조율되기 때문이다(안숙영, 2012). 산재근로자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중년층의 노동에 관한 연구들을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영·심경수(2014)에 의하면 중·고령층 여성의 돌봄노동(노부모 부양)은 경제활동참여는 영향을 미치며,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을 유인할 수 있다.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성별화된 연령차별(gendered age discrimination)’ (서미경, 2012:205 참고)을 경험하며, 저학력 경향이 짙은 고연령 여성은 성별·직업별·계층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도 어렵다(허은, 2013). 그러나 돌봄노동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떠안는 여성에게는 비정규의 주변적 일자리가 좋은 취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안미영(2018)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제 근로를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개선하는 자원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라는 맥락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의 노동자 지위는 재해와 결합 시 더욱 하향화되며 취약한 노동조건에 위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가 있다. 전문적인 직업복귀 지원프로그램의 개입은 산재근로자가 용이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 원활한 직업복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Shaw et al., 2008; Williams, 2003), 개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이정화, 2017). 재활서비스는 크게 직업재활서비스·사회재활서비스·의료재활서비스로 구성되며 내일찾기 서비스와 같이 산재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재활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복잡하고 성격을 달리 하는 성별 분배의 메커니즘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재활서비스의 특성이나 산재근로자의 분포를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이용자 중 남성이 우세할 것으로 유추되며,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하나 추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

Ⅲ. 연구모형 및 분석 자료

1. 분석자료 및 분석 대상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근로복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제1차 코호트 1~5차년도('13~'17년 조사) 패널데이터이다. 이는 2012년 1~12월 중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 82,493명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2,000명을 본표본으로 구축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산재근로자에 특화된 문항을 통하여 5년 간의 시계열 조사를 진행하므로,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산재보험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결한 이듬해부터 5년 간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양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산재보험패널 조사의 1~5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재해 발생 당시에 임금근로자였던 산재근로자 중 이상치를 제거한 1,499명이다.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TATA version 14.0이며,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2.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

연구에서 직업복귀 성과를 측정하는 시간적 범위는 요양을 종결한 이듬해부터 5년이며, 독립변인이 위치하는 시점은 재해가 발생한 당시부터 시작된다. 연구의 모형은 직업복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산재근로자 개인과 가구의 특성, 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의 특성과 재활서비스를 고려하였다. 직업복귀 성과로는 직업복귀 성취 여부를 설명하는 직업복귀 이행과 임금소득, 그리고 직업복귀의 질적인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직무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패널자료의 종단 변화를 살펴보기에 용이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 추정의 모형으로 패널로짓('직업복귀 이행' 추정), 패널회귀모형('임금소득' 추정), 패널 순서형 프로빗('직무만족도' 추정)을 사용하였다.

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통제변인의 큰 영역은 개인 특성, 직업복귀 후 일자리 특성, 업무상 재해, 가구 특성, 재활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개인 특성에는 연령, 혼인 상태, 교육수준, 장애인 등록 여부, 업무수행능력을 포함한다.

‘업무수행능력’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을 10점으로 가정할 경우, 각 조사 시점에서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의미한다.

재해 특성에는 재해의 유형(사고 및 질병), 요양기간, 장해등급, 재해 발생 당시의 종사상 지위와 산업·직업이 포함된다. 이 때 ‘산업’은 앞서 살펴본 현황과 같이 산재근로자의 분포가 높은 ‘기타의 산업’을 준거값으로 설정하여 더미 변수를 형성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조사한 패널데이터의 값을, 산재보험 업종별 분류에서 정의하는 ‘기타의 산업’과 매칭하여 가능한 근접한 분류값을 사용하였다. 직종은 여성의 종사율이 높은 이른바 핑크 칼라(pink collar) 직종, 즉 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을 준거값으로 설정한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및 여성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이 직종의 특성들이 여성에 의한 효과인지 또는 직종에 의한 효과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업복귀 후 일자리의 특성에서는 직업복귀 이행 및 임금소득, 종사상 지위 등 직업복귀 이후의 고용 특성을 포착하는데, 이 중 직업복귀 이행과 임금소득은 추정 모형에 따라 직업복귀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인 동시에 직무 만족도의 추정 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기도 한다. 또한 산업 및 직업 변인의 구성과 정의는 앞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가구 특성에는 가구원 구성에 관한 항목, 거주 지역과 주거지 소유 형태, 그리고 소득·지출 등 가구 경제와 관련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이 때 부양 부모(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변수를 통해서 가구 내 돌봄노동의 부담을 통제하였다.

이 중 ‘산재보험급여 비율’은 가구 소득 대비 산재보험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비율을 구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직업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이는 2012년 말일을 기준으로 취합한 재활서비스의 이용 이력을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종속변인은 직업복귀 성과로 정의하며, 이에 속하는 요인은 직업복귀 이행과 임금소득 및 직무만족도로 구성한다. 직무만족도는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질문 중 ‘①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교육수준 대비 만족도), ‘②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③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은 동일 직종의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 유용하다’(일자리 경험의 유용성)의 3가지 질문에 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해당 변인으로 개별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복귀의 질적인 성과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는 크게 조직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평가 내지는 반응으로 구성되며(곽현주·최은영, 2018:109-110 참고), 본고에서 다루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상세한 변수의 구성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자료는 문항의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재해 발생(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 특성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서 불변하는 변수이고, 그 외 변수들은 요양 종결 연도('12)부터 직후 5년('13~'17) 동안에 매년 수집된 정보이다. 또한 종속변수인 직업복귀 성과 역시 요양을 종결한 후 '13~'17년에 매년 응답한 값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시계열 기간 동안 독립변인의 변화가 직업복귀 성과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중단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복귀 성과'를 직업복귀 이행, 임금수준, 직무만족도(교육수준 대비, 기술수준 대비, 재취업 시 유용성)으로 달리 접근하여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구성과 영역은 가능한 일관된 조건으로 유지하였다. 첫 번째로 '직업복귀 이행'(①) 분석의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 업무상 재해 특성, 직업복귀, 가구특성, 재활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통제하였다. 이어 '임금소득'(②)과 '직무 만족도'(③) 분석에서는 독립변인 영역에 '직업복귀 특성'의 요인들도 함께 투입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단위: 개별 단위)

영역	변수명		변수값	자료 형태
개인 특성	연령		1=30대 이하, 2=40대, 3=50대, 4=60대 이상	종단
	혼인 상태		1=기혼, 0=미혼, 이혼, 사별	
	교육수준		1=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 0=고등학교 졸업 이하	
	장애인 등록 여부		1=등록함, 0=등록하지 않음	
	업무수행능력 ^{a)}		0~10점	
재해 특성	업무상 재해 유형		1=사고, 0=질병	고정
	요양기간		1=6개월 초과, 0=6개월 미만	
	장해등급		1=장해 1~14급, 0=무장해	
	재해 발생 당시 일자리	종사상 지위	1=상용직, 0=비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소득(월)	(만원, 로그)	

영역	변수명		변수값	자료 형태
		산업 ^{b)}	1='기타의 사업', 0=그 외	
		직종	1=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0=그 외	
직업 복귀 특성	직업복귀 이행 ^{a)}		1=취업, 0=미취업	종단
	원직장 복귀 여부		1=원직장 복귀, 0=재취업	
	종사상 지위		1=상용직, 0=비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소득(월)		(만원, 로그)	
	사회보험		1=가입, 0=미가입	
	전일제 여부		1=전일제, 0=시간제	
	산업 ^{b)}		1='기타의 사업', 0=그 외	
	직종		1=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0=그 외	
가구 특성	지역 (서울·인천 및 경기도 지역)		1=수도권 ^{c)} , 0=그 외	종단
	주거 소유 형태		1=자가, 0=비자가	
	가구원 구성	취업 상태인 배우자 ^{c)}	1=있음, 0=없음	
		부양 부모 ^{d)}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1명 이상 있음, 0=없음	
	가구 경제	가구 소득(연)	(가구균등화, 만원, 로그)	
		가구 지출(월)	(만원, 로그)	
		산재보험급여 비율	(%)	
		가구 자산	(만원, 로그)	
		가구 부채	(만원, 로그)	
재활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1=이용, 0=미이용	고정
	사회재활서비스		1=이용, 0=미이용	
직업 복귀 성과	직업복귀 이행 ^{a)}		1=취업, 0=미취업	종단
	임금소득(월)		(만원, 로그)	
	직무 만족도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	1~5점-역코딩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1~5점-역코딩	
		재취업 시 유용성	1~5점	

a: 1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는 요양 종결 후 90일 시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응답임

b: '기타의 산업'으로 분류한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국제 및 외국기관'임

c: 가구원관계코드 3번까지 검토함

d: 가구원관계코드 6번까지 검토함

e: 동일한 변인이며 분석모형에 따라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투입함

IV.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의 특성

분석 대상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분석 표본에서는 여성 산재근로자가 260명, 남성 산재근로자는 1,249명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여성 및 남성 산재근로자에서 공통적으로 50대가 가장 많은데, 남성 산재근로자에서는 비교적 40대 이하 연령대의 비율이 높다. 여성 및 남성 모두 기혼자가 과반수이나 남성에서 조금 더 많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도 남성에서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장애인 등록자는 여성 산재근로자에서 5% 내외이고 남성 중 비율은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고, 업무수행능력은 공통적으로 요양을 종결한 직후보다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해 발생 당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업무상 사고 재해자이고,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은 남성 산재근로자가 44.1%로 여성보다 다소 높다. 과반수가 장해 1~14등급자이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10%p 가량 많다. 재해가 발생한 당시 상용직 임금근로자였던 산재근로자의 비율은 여성 및 남성에서 56~7% 가량으로 비슷하고, 임금소득은 남성이 평균 220.85만원(월)으로 여성의 두 배 가량에 달한다.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였던 산재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이 59.6%로 남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는 여성 산재근로자의 30.5%를 차지한다.

직업복귀를 이행한 일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5차년도 연속 취업자의 조사차수별 원직장 복귀율은 50% 내외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며, 상용직 종사자는 남성 산재근로자에서 조금 더 많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성이 다소 높으나 비슷한 수준이고, 전일제 일자리의 종사자는 남성에서 90% 이상으로 높다. ‘기타의 산업’ 종사자는 여성이 70% 이상으로 남성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은 여성이 30% 이상으로 10% 내외인 남성보다 비교적 높다.

공통적으로 40% 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60% 내외이다. 취업 상태인 배우자의 비율은 여성에서 40%대로 남성보다 다소 높고,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여성 8% 및 남성 10% 내외를 차지한다.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나타나는 산재근로자의 가구 소득(연)의 평균값은 2차년도 조사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점차 상승하는데, 이는 대개 요양을

종결한 이듬해인 1차년도 조사가 휴업급여를 비롯한 단기성 급여가 지급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연유한다(이정화·신슬비, 2017 참고). 본고의 분석 대상에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남성 산재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가구의 월 지출액(평균)은 여성 149~181만원 및 남성 181~207만원 사이에 분포하고, 자산의 가치는 평균 7천만원 내외로 집계되었다. 부채의 경우, 평균값은 20만원 내외로 높지 않으나 최대값이 2~6억원 사이로 분석집단 내 산포도가 큰 편이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직업 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의이용자는 여성 산재근로자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직업복귀 성과의 경우, 직업복귀를 이행한 산재근로자의 비율은 2차년도 조사부터 전년도 조사보다 상승한 후 5차년도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당 비율은 여성 70% 전후 및 남성 80% 가량으로 남성에서 다소 높고, 임금소득의 평균값도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경향이다. 직무만족도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4~5점 사이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40% 내외이며 남성에서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이 중 '재취업 시 유용성' 항목의 경우에 성별 간의 격차가 큰 편이다.

〈표 2〉 분석 대상의 특성

영역	변수명	여성 (n=259)					남성 (n=1,240)				
		1차년도('13)	2차년도('14)	3차년도('15)	4차년도('16)	5차년도('17)	1차년도('13)	2차년도('14)	3차년도('15)	4차년도('16)	5차년도('17)
개인 특성	연령(%)	30대 이하	10.0	8.9	7.7	6.6	6.2	21.6	18.8	16.3	14.4
		40대	19.3	16.6	15.4	13.1	12.0	25.6	25.5	24.8	24.0
		50대	42.9	45.6	40.5	40.2	37.8	35.2	37.0	34.0	33.3
	혼인 상태(1=기혼)(%)	60대 이상	27.8	29.0	36.3	40.2	44.0	17.7	18.7	24.9	28.4
			63.3	62.9	62.9	61.8	62.2	74.2	74.7	74.5	74.4
	교육수준(1=대학교 졸업 이상)(%)		10.4	10.8	10.8	10.8	10.8	16.1	16.0	16.0	16.5
	장애인 등록 여부(1=등록함)(%)		4.6	4.6	5.0	4.6	4.6	9.3	9.8	10.5	9.4
	업무수행능력(6~10점) ^{a)}		66.8	74.1	78.0	78.4	79.9	70.2	79.0	81.8	82.6
	업무상 재해 유형(1=사고)(%)		92.3					91.2			
	요양기간(1=6개월 초과)(%)		35.1					44.1			
재해 특성	장해등급(1=장해 1~14급)(%)		74.5					84.3			
	총사상 지위(1=상용직)(%)		57.1					56.0			
	재해 임금소득(월)(만원/평균)		116.84					220.65			
	당시 산업(1='기타'의 사업*)(%)		59.5					20.7			
	일자리										
	직종										
	(1=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30.5					5.6			
직업 복귀 특성 ^{b)}	원직장 복귀 여부(1=원직장 복귀)(%)		57.3	53.1	51.0	50.0	47.9	56.4	52.4	50.5	48.8
	총사상 지위(1=상용직)(%)		57.3	55.2	56.3	57.3	51.0	63.7	63.3	64.5	65.0
	사회보험(1=가입)(%)		74.0	75.0	76.0	72.9	70.8	71.1	70.6	70.6	70.1
	전일제 여부(1=전일제)(%)		84.4	87.5	87.5	90.6	88.5	95.3	95.8	96.5	96.8
	산업(1='기타'의 사업*)(%)		74.0	72.9	71.9	71.9	75.0	25.5	26.3	26.6	26.3

(단위: 개별 단위)

영역	변수명	여성 (n=259)					남성 (n=1,240)				
		1차년도('13)	2차년도('14)	3차년도('15)	4차년도('16)	5차년도('17)	1차년도('13)	2차년도('14)	3차년도('15)	4차년도('16)	5차년도('17)
가구 특성	직종(1=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	35.4	30.2	35.4	34.4	37.5	9.5	9.4	10.5	10.4	10.1
	지역(1=수도권)(%)	43.6	43.2	43.2	42.9	42.9	42.3	42.0	41.9	41.7	41.8
	주거 소유 형태(1=자가)(%)	64.1	64.1	64.9	64.9	67.2	57.3	58.7	59.0	59.4	60.0
	취업 상태인 배우자 유무(1=있음)(%)	44.8	46.3	45.2	44.4	42.9	30.8	34.0	34.7	34.4	34.5
	가구원 구성										
	부양 부모 유무(1=1명 이상)(%)	8.9	8.9	8.9	8.9	8.1	10.9	10.9	10.6	10.9	9.9
	가구 소득(연)(만원)	1,887.17	1,233.65	1,221.68	1,351.83	1,358.45	3,490.51	2,436.30	2,442.28	2,640.07	2,713.69
	가구 지출(월)(만원)	149.60	152.76	164.64	169.26	167.93	181.35	183.15	200.49	207.55	208.24
	산재보험급여 비율(%)	24.91	3.13	2.07	1.24	1.29	23.99	4.92	3.78	3.32	3.49
	가구 자산(만원)	7,485.77	6,831.50	6,731.47	7,008.53	7,410.49	7,671.04	6,324.17	6,916.10	7,488.26	7,719.37
재활 서비스	가구 부채(만원)	17.90	14.36	21.55	16.04	15.28	19.99	21.81	25.68	27.34	26.27
	직업재활서비스(1=이용)(%)	17.0					14.5				
	사회재활서비스(1=이용)(%)	27.8					22.6				
	직업복귀 이행(1=취업)(%)	61.4	70.3	70.7	72.6	69.5	73.2	82.8	83.0	83.4	83.1
직업 복귀 성과	임금소득(월)(만원) ^{b)}	128.6667	132.79	137.25	139.53	144.94	248.4446	250.34	259.48	267.60	276.29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4~5점)	34.4	41.7	42.7	42.7	42.7	38.6	40.7	46.8	43.9	42.9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b)c)}	38.5	43.7	42.7	44.8	43.7	41.2	43.9	49.6	49.6	47.6
	재취업 시 유용성(4~5점)	32.3	38.5	39.6	42.7	40.6	46.0	50.8	49.6	49.8	49.5

a: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며, 지면 상 6~10점(10점 최고) 응답자의 비율만 도표함. 1차년도 조사에서는 '요양 종결 후 90일째 시점에 서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응답임.

b: 1-5차년도 연속 취업자에 대한 결과임

c: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이며, 지면 상 4~5점(5점 최고) 응답자의 비율만 도표함

2.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와 젠더 특성

1)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①: 직업복귀 이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를 추정하는 첫 번째 모형의 종속변인은 ‘직업 복귀 이행’(더미)이며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regression)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앞서 정의한 산재근로자 1,509명이다.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여성 산재근로자는 확률효과 모형, 남성 산재근로자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우스만 검정은 시간 불변의 변수가 유의성을 갖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Frees, E.W., 2004:242), 여성 산재근로자에서는 오차항 u_i 를 확률변수로, 남성 노동자에서는 이를 고정변수로 가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여성 산재근로자에서 직업복귀를 유인하는 요인은 본인의 ‘업무수행능력’, ‘임금소득(재해 발생 당시)’, ‘가구 소득’, ‘가구 자산’이며, 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요양기간’과 ‘산재보험급여 비율’로 확인되었다. 즉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보다 짧은 경우. 종단적인 직업복귀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동자에서는 1,240명 중 1~5차년도 조사 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복귀 이행 상태가 고정된 871명을 제외하여 최종 371명에 대한 패널로짓분석이 이루어졌다. 직업복귀 이행에 양(+)의 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 ‘업무수행능력’, ‘가구 지출’이며 음(-)의 요인은 ‘산재보험급여 비율’이었다. 즉 가구 소득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직업복귀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결과는, 그만큼 산재근로자의 장애등급이 중증이거나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직업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의 이용률은 1~5차년도 간 변화가 없으므로 제거되었다.

〈표 3〉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①: 직업복귀 이행

		여성 (n=259)		남성 (n=369) ^{a)}	
		β^{RE}	S.E.	β^{FE}	S.E.
개인 특성	연령	-0.247	0.205	0.485*	0.220
	혼인 상태	-0.138	0.427	0.590	0.513
	교육수준	0.041	0.648	1.212	1.049
	장애인 등록 여부	-0.834	0.717	0.579	0.698
	업무수행능력	0.309***	0.061	0.360***	0.052

		여성 (n=259)		남성 (n=369) ^{a)}	
		β^{RE}	S.E.	β^{FE}	S.E.
재해 특성	재해 유형	-0.094	0.580	(omitted)	-
	요양기간	-0.731*	0.357	(omitted)	
	장해등급	-0.017	0.408	(omitted)	
	종사상 지위	0.193	0.340	(omitted)	
	임금소득(월)	1.958**	0.977	(omitted)	
	산업	0.350	0.379	(omitted)	
	직종	-0.513	0.386	(omitted)	
가구 특성	지역	0.505	0.327	-1.564	1.007
	주거 소유 형태	-0.298	0.348	0.121	0.327
	취업 상태인 배우자	0.206	0.401	-0.031	0.306
	부양 부모	0.156	0.454	-0.320	0.402
	가구 소득(연)	0.793***	0.123	-0.036	0.065
	가구 지출(월)	0.181	0.594	1.406**	0.419
	산재보험급여 비율	-0.027***	0.006	-0.019***	0.003
	가구 자산	0.391*	0.194	0.068	0.121
	가구 부채	0.071	0.080	0.099	0.063
재활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0.436	0.487	(omitted)	-
	사회재활서비스	0.162	0.405	(omitted)	
_cons		-7.729**	2.501	-	
Log likelihood		-547.45963***		-587.1049***	
Hausman Test		$\chi^2=4.11$		$\chi^2=93.49***$	

*p<.05, **p<.01, ***p<.001

a: 1~5차년도 조사 동안 지속적으로 미취업 및 취업인 871명 제거

2)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②: 임금소득(월)

두 번째로는 ‘임금소득(월)’에 관한 직업복귀 성과 추정 모형을 분석하였다. 하우스만 추정을 통하여 여성 및 남성 산재근로자 모두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산재근로자의 5년 간 임금소득 변화에 정(+)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업무수행능력’, 직업복귀를 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사회보험’·‘전일제 여부’이며 가구 특성 중 ‘지역’, ‘가구 소득’ 및 ‘가구 지출’이 검증되었다. 남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연령’, ‘업무수행능력’, 직업복귀 특성 중 여성과 동일한 변인, 그리고 가구 특성 중 ‘가구 소득’·‘가구 지출’·‘가구 부채’가 식별되었다. 또한 임금소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복귀 한 일자리의 ‘산업’과 ‘취업 상태인 배우자’로 나타났다.

위 결과와 같이 요양을 종결한 후 5년간의 임금소득 변화에 대하여, 여성 및 남성에서 공통적으로 직업복귀 시 고용조건이나 일자리 특성과 가구의 특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때 남성 근로자에서는 가구경제와 관련한 요인의 계수가 여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표 4〉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②: 임금소득(월)

		여성 (n=96)		남성 (n=695)	
		β^{FE}	S.E.	β^{FE}	S.E.
개인 특성	연령	0.004	0.013	0.013**	0.005
	혼인 상태	-0.049	0.042	0.017	0.013
	교육수준	(omitted)	-	0.028	0.043
	장애인 등록 여부	(omitted)		-0.012	0.024
	업무수행능력	0.006**	0.002	0.007***	0.001
재해 특성	재해 유형	(omitted)	-	(omitted)	-
	요양기간	(omitted)		(omitted)	
	장해등급	(omitted)		(omitted)	
	종사상 지위	(omitted)		(omitted)	
	임금소득(월)	(omitted)		(omitted)	
	산업	(omitted)		(omitted)	
	직종	(omitted)		(omitted)	
직업 복귀 특성	원직장 복귀	-0.005	0.024	-0.016	0.009
	종사상 지위	0.044*	0.019	0.032**	0.009
	사회보험	0.053**	0.016	0.020*	0.008
	전일제	0.176***	0.019	0.062***	0.013
	산업	-0.019	0.026	-0.049***	0.009
	직종	0.032	0.018	-0.001	0.012
가구 특성	지역	0.219**	0.062	0.031	0.040
	주거 소유 형태	0.030	0.018	0.009	0.008
	취업 상태인 배우자	0.020	0.028	-0.022**	0.008
	부양 부모	-0.015	0.030	-0.005	0.010
	가구 소득(연)	0.067***	0.015	0.104***	0.009
	가구 지출(월)	0.074**	0.029	0.119***	0.012
	산재보험급여 비율	0.000	0.000	0.000	0.000
	가구 자산	-0.011	0.009	0.001	0.003
	가구 부채	-0.003	0.004	0.005**	0.001
재활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omitted)		(omitted)	
	사회재활서비스	(omitted)		(omitted)	

	여성 (n=96)		남성 (n=695)	
	β^{FE}	S.E.	β^{FE}	S.E.
_cons	1.386***	0.108	1.568***	0.049
sigma_u	0.172947		0.135409	
sigma_e	0.061336		0.071251	
R-sq	within=0.4041 between=0.2956 overall=0.3056 F(95, 366) = 10.52***		within=0.1531 between=0.4531 overall=0.3906 F(20,4560) = 24.95***	
Hausman Test	$\chi^2=43.01^{**}$		$\chi^2=326.54^{***}$	

*p<.05, **p<.01, ***p<.001

3)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③: 직무 만족도

본 절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를 추정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는 5점의 리커트 척도이므로, 패널순서모형을 사용하였다. 우도비 검정을 통하여 직무 만족도를 설명하는 3가지 모형에 대해서 여성 및 남성 산재근로자 모두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여성 산재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변화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에서는 ‘장해등급(-)’만이 검증되었고,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취업 시 유용성’에서는 ‘원직장 복귀’가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교육수준’과 직업복귀 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및 ‘임금소득’이 이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남성 산재근로자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남성 노동자의 직업복귀 후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음(-)의 요인이며, 양(+)의 요인으로서는 재해 당시의 ‘임금소득’과 현재 일자리의 ‘임금소득’, 가구 특성 중 ‘지역’이 검증되었다.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현재 일자리의 ‘임금소득’, 거주하는 ‘지역’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하여 부(-)의 작용을 하는 변인은 직업복귀 한 일자리의 ‘산업’과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확인되었다. ‘재취업 시 유용성’에서는 양(+)의 변인으로 재해 당시의 ‘임금소득’과 직업복귀 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임금소득’, ‘지역’이 확인되었다. 음(-)의 변인은 직업복귀 한 일자리의 ‘원직장 복귀’와 ‘산업’,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직업재활서비스’의 결과를 통하여 이용자 및 미용자 간에 직무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 서비스의 특성 상 원직장 미복귀자(재취업자, 미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있을 경우 직업복귀를 하더라도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

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5〉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③: 직무 만족도 - 여성 산재근로자

(n=96)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재취업 시 유용성	
		β^{RE}	S.E.	β^{RE}	S.E.	β^{RE}	S.E.
개인 특성	연령	-0.156	0.134	-0.055	0.141	-0.048	0.120
	혼인 상태	-0.176	0.329	-0.161	0.351	0.393	0.295
	교육수준	-0.183	0.345	-0.038	0.370	0.694*	0.298
	장애인 등록 여부	-0.373	1.079	-0.595	1.175	-0.892	0.911
	업무수행능력	0.041	0.035	0.029	0.036	-0.014	0.033
재해 특성	재해 유형	0.119	0.377	-0.003	0.409	-0.353	0.322
	요양기간	-0.295	0.263	-0.485*	0.284	0.011	0.222
	장해등급	-0.513*	0.251	-0.492*	0.273	-0.240	0.215
	총사상 지위	-0.501	0.291	-0.205	0.311	0.215	0.253
	임금소득(월)	0.790	0.900	0.704	0.961	-1.337	0.778
	산업	0.364	0.353	0.272	0.376	0.105	0.312
	직종	-0.316	0.315	-0.326	0.335	0.222	0.276
직업 복귀 특성	원직장 복귀	-0.060	0.208	-0.202	0.227	-0.382*	0.182
	총사상 지위	0.241	0.246	0.120	0.256	0.457*	0.224
	임금소득(월)	0.815	0.688	0.915	0.722	1.450*	0.637
	사회보험	0.226	0.218	-0.013	0.229	-0.063	0.201
	전일제	0.396	0.285	0.480	0.301	-0.245	0.259
	산업	0.088	0.329	0.364	0.346	0.179	0.299
	직종	0.094	0.254	0.115	0.267	0.006	0.234
가구 특성	지역	-0.101	0.210	-0.177	0.227	0.136	0.181
	주거 소유 형태	0.139	0.240	0.092	0.253	0.314	0.218
	취업 상태인 배우자	-0.121	0.287	-0.143	0.304	0.063	0.261
	부양 부모	0.228	0.241	0.245	0.255	0.127	0.213
	가구 소득(연)	-0.133	0.309	-0.009	0.309	0.070	0.284
	가구 지출(월)	-0.057	0.430	0.144	0.448	-0.553	0.403
	산재보험급여 비율	-0.002	0.005	0.003	0.005	0.000	0.005
	가구 자산	-0.110	0.118	-0.029	0.125	-0.044	0.109
	가구 부채	0.026	0.050	-0.033	0.052	-0.020	0.046
재활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0.099	0.370	0.057	0.400	-0.172	0.312
	사회재활서비스	-0.377	0.324	-0.475	0.349	-0.385	0.275
_cut1		-0.622	2.043	0.367	2.181	-3.429*	1.757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재취업 시 유용성	
	β^{RE}	S.E.	β^{RE}	S.E.	β^{RE}	S.E.
_cut2	0.620	2.038	1.576	2.179	-2.339	1.753
_cut3	2.558	2.040	3.727***	2.183	-0.643	1.752
_cut4	4.250**	2.045	5.623**	2.191	1.339	1.753
Log likelihood	-500.64797**		-468.15303**		-510.93453**	
LR χ^2	57.68***		69.45***		27.09***	

*p<.05, **p<.01, ***p<.001

〈표 6〉 직업복귀 성과 추정 ③: 직무 만족도 - 남성 산재근로자

(n=695)

		㉠교육수준 대비 만족도		㉡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재취업 시 유용성	
		β^{RE}	S.E.	β^{RE}	S.E.	β^{RE}	S.E.
개인 특성	연령	0.046	0.039	0.059	0.040	-0.014	0.041
	혼인 상태	-0.029	0.098	-0.032	0.101	0.020	0.105
	교육수준	-0.121	0.102	-0.130	0.105	0.049	0.111
	장애인 등록 여부	-0.042	0.150	-0.100	0.155	0.056	0.163
	업무수행능력	0.006	0.016	-0.005	0.016	0.001	0.017
재해 특성	재해 유형	-0.005	0.125	-0.022	0.130	-0.045	0.138
	요양기간	0.126	0.079	0.092	0.082	-0.063	0.087
	장해등급	-0.068	0.098	-0.044	0.102	0.024	0.109
	종사상 지위	0.096	0.109	-0.029	0.113	-0.143	0.117
	임금소득(월)	0.641**	0.226	0.416	0.234	0.602*	0.245
	산업	0.084	0.117	0.201	0.121	0.124	0.128
	직종	-0.120	0.175	-0.160	0.181	-0.259	0.190
직업 복귀 특성	원직장 복귀	-0.006	0.075	-0.008	0.078	-0.172*	0.081
	종사상 지위	0.060	0.109	0.161	0.112	0.201*	0.113
	임금소득(월)	0.621*	0.238	0.925***	0.244	0.538*	0.246
	사회보험	0.162	0.093	0.115	0.096	0.128	0.098
	전일제	0.037	0.151	0.064	0.154	0.235	0.157
	산업	-0.068	0.096	-0.203*	0.099	-0.244*	0.102
	직종	-0.033	0.133	0.110***	0.136	0.088	0.139
가구 특성	지역	0.394***	0.074	0.320	0.076	0.412***	0.081
	주거 소유 형태	-0.050	0.073	-0.044	0.075	0.077	0.077
	취업 상태인 배우자	0.138	0.074	0.101	0.076	0.065	0.079
	부양 부모	-0.009	0.080	0.001	0.082	0.030	0.085

		㉔교육수준 대비 만족도		㉕기술수준 대비 만족도		㉖재취업 시 유용성	
		β^{RE}	S.E.	β^{RE}	S.E.	β^{RE}	S.E.
	가구 소득(연)	-0.082	0.130	-0.200	0.132	0.188	0.132
	가구 지출(월)	-0.201	0.168	-0.138	0.171	0.187	0.172
	산재보험급여 비율	-0.005**	0.002	-0.007***	0.002	-0.001	0.002
	가구 자산	-0.037	0.042	-0.043	0.043	-0.058	0.044
	가구 부채	0.002	0.016	0.021	0.017	0.026	0.017
재활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0.187	0.120	0.183	0.125	-0.275**	0.133
	사회재활서비스	-0.108	0.099	-0.113	0.103	0.153	0.109
_cut1		-0.366	0.633	-0.663	0.655	0.908	0.680
_cut2		0.990	0.629	0.576	0.651	2.344	0.678
_cut3		2.812	0.630	2.501	0.652	3.996	0.680
_cut4		4.470	0.633	4.306	0.655	5.920	0.684
Log likelihood		-3778.5591***		-3626.7273***		-3797.0789***	
LR χ^2		489.04***		533.73***		675.02***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이상으로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중단 자료를 젠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복귀의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한 추정 모형이 채택되었다¹⁾. ‘직업복귀 이행(㉔)’ 모형에서는 여성 산재근로자에서 확률효과, 남성 산재근로자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하였다. 또한 ‘임금소득(㉕)’ 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정효과, 직무 만족도(㉖) 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확률효과 모형이 도출되었다. 즉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요양 종결 후 5년간 직업복귀를

1) 예상과 달리 재해의 유형은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호·김건우(2018)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성 재해는 사고성 재해에 비해 평균 요양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은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재해 유형별 직업복귀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직업 복귀가 단순히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재해 유형보다는 상해부위, 중증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재보험 패널데이터로 설명을 보충하면, 1차년도(2013년) 조사에서 사고성 재해자와 질병성 재해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각각 92.2% 및 7.8%로 집계되었다(가중치 적용).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산재근로자는 사고성 재해자의 77.8% 및 질병성 재해자의 80.9%, 그리고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각각 70.3% 및 81.0%가 직업복귀를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성취하는데 있어서,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던 당시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부여된 산재근로자로서의 특성이나, 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의 고용조건 등을 기점으로 여성 산재근로자 내에서 격차와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종단적인 직업복귀 이행은 과거에 생성된 업무상 재해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임금소득의 변화(②)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개인·가구 및 일자리 특성과 같이 요양 종결 이후에 생성된 요인들이 유의하였다. 특히 임금소득인 만큼,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직업복귀를 한 일자리의 고용조건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직업복귀의 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직무 만족도(③)’에서는 여성과 남성 산재근로자에서 모두 확률효과가 검증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해를 통하여 포착되는 특성이 여전히 산재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제약하며 통제하는 기제로 잔존하는 메커니즘을 실증하였다.

둘째, 위 결과 중 차이가 명확한 ‘직업복귀 이행(①)’ 모형과 ‘직무 만족도(③)’ 모형을 성별로 분해하여 비교해보자. 이 결과들에 대한 논의로 한정할 때 여성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은 재해 특성에서 확인되었고, 남성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를 이끌어내는 축은 개인·가구 특성과 직업복귀를 한 일자리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가구 특성과 직업복귀 한 일자리의 일부 특성들이 유의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의 직업복귀 성과를 이끌어가는 주된 축은 재해 특성이며, 그 중에서도 산재근로자 개인 차원의 특질로 나타났다. 물론 직업복귀의 성취에 산재근로자의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구의 상황이 관련을 맺는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들이다. 하지만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재해로 인한 요양의 기간이 이를 종결한 후 5년간의 직업복귀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남성 산재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의 직업복귀 이행 과정에는, 재해로 인하여 생성된 요건의 영향력이 잔존하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직무 만족도(③)’ 모형의 결과는 장기적으로도 직업복귀의 질적인 성과(직무 만족도)가 재해라는 사건으로 특징지어지는 경계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한다. 젠더 특성을 정리하면 여성 산재근로자의 경우 장애등급이 유의하였는데, 다만 이 중 ‘재취업 시 유용성(③-㉔)’에서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의 효과가 검증된 것은 조금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남성 산재근로자에서는 ‘가구 상황’으로 대표되는 생계 부양의 책무와 직업복귀 후 노동시장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다. 또한 ‘직무 만족도(③)’에서 일부 유의한

재해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여성과 달리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해 특성 중에서도 여성은 대체적으로 장해등급이나 요양기간과 같이 산재근로자의 특질이 유의하였다면 남성은 재해 당시의 고용조건이 유의한 관련을 맺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공통적인 결과들을 짚어보면, 산재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대리하는 변인은 ‘장해등급’ 대신 ‘업무수행능력’과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검증되었다. 즉 ‘업무수행능력’은 장해등급을 보완하는 노동능력의 변화를 설명하였고, ‘산재보험급여 비율’은 한 걸음 나아가 업무상 재해와 가구경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변수들은 산재근로자 재해에 대한 해석이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구에서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과 산재보험급여의 역할이라는 양면의 상황을 가늠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중요하게 짚어야 하는 내용은 재해 발생 당시의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이다. 재해 당시(이전)의 고용조건은 이제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추정되었다. 요양 종결 직후나 종결 시기를 기점으로 멀지 않은 시간 동안의 변화 또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현상을 포착한 선행연구들보다 비교적 긴 시간을 다루었기에 얻은 결과로 본다.

넷째, 위 결과들을 통하여 여성 및 남성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가 노동시장 참여나 재취업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만, 산재근로자로서의 특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젠더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산재근로자를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 여성 산재근로자는 여성 근로자와 산재근로자의 특성 내지는 취약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여성의 유급·무급 노동과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업무상 재해의 상황을 집약한다.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 시와 고용조건에서 두 번의 격차를 경험한다고 할 때(곽현주·최은영, 2018:111), 여성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노동시장에 재진입 함으로써 경험하는 세 번째 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장년층이 과반인 여성 산재근로자의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장해등급 등 단편적인 특성만으로 설명되거나 그 외 유의한 변인을 도출하지 못한 결과는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직업복귀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직업복귀의 이행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제한선이 남성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재해를 경험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로와 성과를 젠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성별 간 차이를 고려한 연구와 정책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고 성별을 분해하여 기존

연구들의 시각을 연장시켰으며, 직업복귀의 과정 속에 가려진 젠더의 특성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 복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성별과 엮어낸 젠더 공간에서 달리 이루어지는 직업복귀의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산재로 귀결되는 특성이 요양을 종결한 이후 5년간의 직업복귀 성과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젠더 간에 구별된 영향을 미치는 결과 역시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거나 결과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지점들로, 후속연구를 통해서 더욱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가 남성의 경우보다 높은 장벽을 마주하며, 이들에 대하여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시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산재근로자가 재해 발생 당시의 고용조건이나 장애등급 등에 의하여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취약성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 산재근로자에게는 직업복귀 전반에서 해당 요인들의 고착화된 영향력이 남성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서비스가 작동하는 체계에서도 여성은 주요한 서비스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요양기간이나 장애 또는 교육·기술수준 등 여성 산재근로자의 특징, 노동자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활서비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취약자가 적절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활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설계함에 있어 단기적인 직업복귀의 달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종사상 지위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객관적인 지표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산재근로자의 환경이나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재활서비스는 남성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 중 재취업 시 유용성의 모형(③-㉔) 모형에서만 유의하였고, 이 때 서비스의 효과보다는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변인이 2012년까지의 이력이므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우나, 요양종결 시점과 가장 밀접한 시기에 개입하는 재활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직업복귀 성과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 점차 다양한 일자리가 생성되고 유연성이 심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성별로도 희망하는 직무나 일자리에서 요하는 능력이 다변화될 것이므로,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젠더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여성노동자가 산재보상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이 약한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재활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제도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셋째, 직업복귀를 한 산재근로자가 응답한 직무 만족도의 과반이 보통이나 낮은 수준에 분포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직무 만족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복귀를 성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입장으로 읽힌다. 이 결과는 노동시장 복귀 시 일자리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의 폭이 좁고, 산재근로자가 기존에 위치하였던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에 갇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좋은 일자리로 이끌어줄 만한 유인기제가 많지 않으며 양질의 직업을 접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산재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적합한 직업복귀가 성취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수도권일수록 직업복귀 성과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근로자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된 직업복귀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임을 제언한다.

산재보험제도의 지평이 확장됨에 따라 여성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제도에 더욱 의미 있는 정책대상으로 자리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산재근로자 간의 성별 격차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출퇴근 재해의 인정, 업무상 질병인정범위에 관한 검토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증가, 여성 근로자의 재생산권 보호에 관한 산재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점차 바뀌어가는 성별 지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과 사회, 국가 제도의 점진에 위치한 산재보험제도와 산재근로자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젠더 인지적 연구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산재근로자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므로 더욱 설명력 높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패널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상으로 2012년 이후의 재활서비스 이용 이력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여러 종류의 재활서비스가 혼합되어 있어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려내기 어려웠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의 업종분류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는 점도 연구의 미진함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과제를 안고 있으나, 기존 연구의 흐름 속에서 젠더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증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동욱(2017).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영향요인 연구”. GRI 연구논총, 제19권 제3호, 447-466.
- 곽현주·최은영(2018).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제97권 제2호, 103-140.
- 고용노동부(2016).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고용노동부(2017).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권순식(2016). “비정규직 고용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169-194.
- 김정하(2012). 근골격계질환 요양 실태 분석. 근로복지연구원.
- 김상호·배준호·윤조덕·박종희·원종욱(2014).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상). 21세기북스.
- 김영미(2010).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한국여성학, 제26권 제3호, 65-89.
- 김우영·권현지(2016). “사업체별 재해빈도에 대한 노동조합 효과”. 산업관계연구, 제26권 제2호, 85-110.
- 민인식·최필선(2012). STATA 패넬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 박수경(2012).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재활복지, 제16권, 293-318.
- 박은정(2015). “산재보험법의 경제성 고쳐 세우기”. 노동법학, 제54권, 65-89.
- 박은주(2012). 여성근로자의 산재보상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연구원.
-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39-82.
- 오종은(2014).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방향: 대리운전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4호, 119-146.
- 안숙영(2012). “젠더의 렌즈로 본 복지공간”. 한국여성학, 제28권 제1호, 113-146.
- 양재성·오순복·임성수(201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요양종결 후 장애판정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3호, 153-177.
- 서미경(2012).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1호, 199-226.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153-187.
- 신경아(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제1호, 321-359.
- 안미영(2018).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족 내무급노동 분배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7호 제2권, 45-71.
- 이경희(2010).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 제33권, 227-258.
- 이승렬·이승욱(2016).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웅·엄명용(2016).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4호, 97-118.
- 이윤진·이다미(2015).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와 성공적인 직업복귀”,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3-27.
- 이은혜·이현실·양지안(2017).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형태에 따른 일상생활 및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7권 제2호, 107-131.
- 이정화(2017).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eturn-To-Work)’: 개인, 분절된 노동시장, 제도 차원의 접근”,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 389-422.
- 이정화·신슬비(2018).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근로복지연구원.
- 정진주·김형렬·임준(2011). “산재보험 수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시론적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30권, 151-176.
- 최근호·김건우(2018). “산재근로자의 작업능력 회복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중증도 지수 개발”. *직업재활연구*, 제28권 제3호, 1-27.
- 최근호·서용무·유동희(2015). “산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규칙 도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25권 제3호, 5-24.
- 최영·심경수(2014). “중·고령층 여성의 노부모 수발과 경제활동참여”,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3호, 277-295.
- 한기명·이민아(2017).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고용유지 영향 요인: 재발사 건생존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4호, 221-249.
- 허은(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241-266.
- 홍승아·마경희·최인희(2013).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rouwer, S., Reneman, M. F., Bültmann, U., Van der Klink, J. J., & Groothoff, J. W.(2010). A prospective study of return to work across health conditions: perceived work attitude, self-effica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0(1), 104-112.
- Dunstan, D. A., & MacEachen, E.(2013). Bearing the brunt: co-workers' experiences of work reintegration processe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3(1), 44-54.
- Frees, E. W.(2004). *Longitudinal and Panel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uson, L.(2013). Gender, Work,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Waylen, G. et al.(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Politics*(pp.337-361.). Oxford University Press.
- O'connor, J. S.(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1-518.
- Orloff, A. S.(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3-328.
- Orloff, A. S.(2009). Gend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s: An unfinished agenda. *Sociological Theory*, 27(3), 317-343.
- Pascall, G., & Lewis, J.(2004). Emerging gender regimes and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a wider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3(03), 373-394.
- Rein, M.(1985). Wome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The future of welfare*, 37-57.
- Sainsbury, D.(1993). Dual Welfare and Sex Segregation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the UK, the US, the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22(1), 69-98.
- Sainsbury, D.(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w, W., Hong, Q. N., Pransky, G., & Loisel, P.(2008). A literature review describing the role of return-to-work coordinators in trial programs and interventions designed to prevent workplace disability.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8(1), 2-15.
- Wasiak, R., Young, A. E., Roessler, R. T., McPherson, K. M., Van Poppel, M. N., & Anema, J. R.(2007). Measuring return to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7(4), 766-781.
- Williams, J. M., & Demeter, G. T.(2003). The Rol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Demeter, S. L., & Andersson, G. (Eds.). *Disability Evaluation*, 644-648,
- Young, A. E.(2010). Employment maintenance and the factors that impact it after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2(20), 1621-1632.
- Young, A. E., Roessler, R. T., Wasiak, R., McPherson, K. M., Van Poppel, M. N., & Anema, J. R.(2005).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of return to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5(4), 557-568.

Abstract

Gendering Injured Workers' Return-to-Work Performance : Evidence from South Korea

Jeong Hwa Lee*

This article attempted to gendering the Return-to-Work(RTW) performance of injured workers in South Korea. Although a number of studies have addressed gender differences in a labor market participation so far, few studies have conducted to uncover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ocusing on injured worker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jured workers are so different from non-injured workers in many aspects, further studies dealing with the injured workers need to be conducted. To this end, this study defined the RTW Performance as three dimensions: 1) RTW achievement, 2) the wage income, and 3) the job satisfaction.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unveil the gender differences in RTW performance of injured workers by using PSWCI(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longitudinal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in case of female injured workers, unlike to the case of male injured workers, their "RTW achievement" is still affected by the factors related to employment condition before the incident occurred within five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medical care(model 1), and that the nature of occupational injury/illness caused gaps and cleavages within them. As for the change in "wage income"(model 2), the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household, and job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gender.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job satisfaction"(model 3), which measures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RTW,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injury/illness still limits or controls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in common.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noteworthy that the factors resulting from occupational injury/illness continues to affect the RTW performance over the five years after the end of the care. This study addresses the RTW performance of injured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a gender and demonstrates the needs for further researches and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gender differences.

* Research Fellow,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Keywords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ccupational Injury/Illness, Injured Worker, Return-To-Work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Gender approach